



“환경의 날을 맞아”



이 종 영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영남권부회장
(주)LG화학 온산공장 환경팀 부장

안녕하십니까? 본 연합회 영남권부회장 이종영입니다.

봄인가 싶더니 벌써 한여름의 초입인 6월이 됐고 5일은 1972년 UN에서 정한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의 시각을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돌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저와 저희 공장의 환경부서원들은 전미국부통령 옐고어가 출연한 '불편한 진실'이란 다큐멘터리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미국에서 작년 9월에 개봉했고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불편한 진실'은 인간에 의해 지구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철저한 통계자료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개발에 의해 이산화탄소(CO₂)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기권이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 태양으로부터 접수된 빛이 우주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내부를 계속 데우게 됩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로 인해 난류와 한류의 해양대순환의 변경은 물론 태풍이나 폭우가 잦아지면서 결국엔 빙하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 <불편한 진실>에서는 단순히 참고 자료를 통한 이론적인 해설에 그치고 있지만 그렇게 지구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개봉한 '투모로우'란 영화와 최근의 기상이변을 다룬 뉴스들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는 내내 전 영화란 매체가 가진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만약 우리가 영화에 대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라는 - 편견을 조금만 버릴 수 있다면 책보다 오히려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는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영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생활에서 실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지구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전구를 형광등으로 교체하세요.
1년에 68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 ♣ 자동차 이용을 조금만 줄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아니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때요? 2km만 차를 안타도 600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 ♣ 재활용을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1/2만 재활용해도 1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 ♣ 타이어를 체크해 보세요.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름을 3%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휘발유 4리터를 아끼면 이산화탄소가 9Kg 줄어듭니다.
- ♣ 따뜻한 물을 조금 덜 사용하세요.
물을 가열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면 1년에 16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빨래를 할 때에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보세요.
- ♣ 상품포장을 조금만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를 10%만 줄여도 540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 ♣ 겨울 난방온도를 2도만 낮추고, 여름 냉방온도를 2도만 높여보세요. 1년에 900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 ♣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 1그루가 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 ♣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세요.
1년에 수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환경기술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K)